

주의 공헌 대축일

기도서 237 편

제1독서 : 이 사 60, 1-6
제2독서 : 에 페 3, 2-3a, 5-6
복 음 : 마 태 2, 1-12

숲 정 이

발행처 전주교전주교구
편집인 홍보국
인쇄관 리국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6
전주 교구청
☎ 0041 · 0042 · 0043

□ 강론



주님의 별이 되어 이웃을 비추자

성민호 신부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말한 동방 박사들은 멀고도 험준한 여정을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을 뵈자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바로 이러한 참된 기쁨을 온 세상에 넘치도록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주님께서는 비록 당신을 잘 맞이하도록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여 준비시켰지만 그분은 분명히 온 인류를 위한 구세주이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이교 백성들이며 타 민족인 동방 박사들에게도 당신의 탄생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교 백성들이 너의 빛을 향하여 걸어오리라”하신 이사야의 예언대로 오늘 동방 박사들은 모든 민족을 대표하여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를 경배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사람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 때문에 이미 보내주시기로 약속한 메시아가 세상에 탄생하셨음을 이교 백성을 포함한 모든 민족에게 정식으로 공포하신 날이며, 천주 성자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셨음을 내외에 공적으로 알리신 날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비록 험난한 길이었지만 성실하게 진리의 빛을 따랐기 때문에 모든 민족을 대표하여 사람으로 강생하신 성자를 경배하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뜻을 따랐기에 동방 박사들 못지 않게 주님을 알고 경배할 뿐 아니라 그분을 모시고 차지하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랐던 동방 박사들은 하느님의 크신 자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선물을 아기 예수께 바쳤습니다. 신앙의 은총으로 주님을 알고 기쁜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도 가장 소중하고 값진 것을 주님께 선물로 바쳐야 합니다.

특히 금년은 한국교회 200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우리는 우리 선조들의 자랑스런 모습을 현양하면서 장차 우리 후손들에게 넘겨 줄 신앙의 유산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처럼 중대한 시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사명을 생각하고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옷깃을 여미며 마음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이 땅에 빛을” 200주년의 슬로건으로 설정한 이유도 바로 우리가 이웃을 주님께 인도하는 빛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옛날 동방 박사들이 주님의 별을 보고 그분을 찾았듯이 우리 이웃들도 우리를 보고 주님을 찾아 경배하도록 해야만, 공헌 대축일의 의미를 살리는 것입니다. (신배인 주임신부)



어느 새가 먼저...

마당에 나무가 많은 순미네 집에는 아침마다 새들이 지저귐다. 한 마리가 울기 시작하면 다른 새들이 따라서 합창을 한다는 사실을 엄마에게 배운 순미에게는 궁금증이 생겼다. 맨 처음에 온 새를 알고 싶었다. 그것이 차츰 바뀌어 누가 제일 먼저 말했는가 알고 싶어 졌다. 하느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사람들이 말한 것 같다고 엄마는 가르쳐 주셨다. 그리고 엄마는 하느님이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고 물으셨다. 이에 순미는 “이 세상은 아름답다”고 자랑스럽게 소리쳤다. (최정희 지음 「어느 새가 먼저 울까요」에서)

우리는 이 짧은 동화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그리고 이 동화는 성서 창세기에 그 뿌리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인간이 찾고자 하는 본래적인 꿈에 그 근원을 두고 있음이 분명하다. 굳이 성서의 말씀을 빌리지 않더라도 낮과 밤, 계절의 변화, 생태계의 균형 등 자연조화의 이치를 자세히 살펴 보면 이 세상은 참으로 잘 만들어졌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어떠한가? 자연계에는 공해가 생태계의 균형을 깨트리고, 사람들 사이에는 죄악이 판을 치고 있다. 이 모두의 주범은 인간이다. 인간의 지나친 욕망들이 아름답게 만들어진 이 세상을 갈기 갈기 찢어놓고 말았다. 이 엄연한 사실에 대해서 나는 아니라고, 나는 관련이 없다고, 나는 모른다고 말하지 말라.

82년 초에 시작되었던 소위 <태창사건>이 이제 더 크게 번져 84년으로 넘어오고 말았다. 교구 사제단은 총회를 열어 이 사태의 심각성이 현정권에 대한 불신으로 번짐을 안타까와 하고 있다.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할 것인가? 나하고는 관련이 없고, 또 내 일이 아니라는 무관심이 그 주범이다.

숲 정 이 산책



알차게 힘쓰시다!

1984년도 전주교구 사목지침

친애하는 교형 자매 여러분!

1. 마음 설레이며 기다리던 20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대망의 1984년은 “이 땅에 빛을” 전하는 교회라 되겠다는 기치 아래 교회의 모습을 새롭게 하는 해이며, 우리의 자랑스런 103위 순교복자들이 성인품에 오르게 되고, 교황성하를 한국에서 만나게 되는 해입니다. 우리는 이 해를 기다리면서 1980년 “가정 성화의 해”로 부터 시작하여 81년 “이웃 진교의 해” 82년 “본당 공동체의 해” 그리고 83년에는 “교구 공동체의 해”를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준비하여 왔습니다. 안으로는 순교 선열들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수난과 부활을 깊이 살면서 우리 모두 믿음과 사랑 속에 하나 되기를 노력해 왔고, 밖으로는 보다 힘있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이결과 비록 미진한 점이 없지 않으나 우리 교회는 전체적으로 활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새로운 전환점을 이룩해야 되는 200주년의 해를 맞이하여 그동안의 우리의 의지와 노력을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진정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지 자문해 보고 또한 우리 교회의 발전이 어느 곳에 편중되고 있거나 않은지 살펴야 하겠습니다.

2. 20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교회는 수많은 박해 속에서 성장해온 교회입니다. 우리의 순교 선열들은 온갖 박해와 시련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수난과 부활의 신비를 깊이 살줄 알았으며 이 땅에 구원의 빛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바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지녔습니다. 실로 오늘의 한국교회가 갖가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장한 것은 우리에게 앞서 무수한 순교자들이 믿음을 위해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분들의 믿음과 용기 그리고 순교정신이 우리 한국교회의 튼튼한 기초이자 거룩한 유산이며 전통입니다. 이렇듯 훌륭한 이분들의 믿음과 순교정신이 이분들을 복자 또는 성인품에 오르게 했고 우리는 후손된 도리로서 마땅히 그분들의 덕을 높이 기리며 공경해야 하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 각자가 먼저 순교정신으로 세심되고 재무장될 때 비로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많은 결실을 맺게 될 것이며 또한 선교 300년대를 맞이하는 우리 후손들에게 보다 빛나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3.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선하며 꼭 해야 할 일은 바로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봉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설파하신 진리가 세기를 두고 모든 사람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것은 죽기까지 사랑하고 봉사했기 때문입니다. 이

제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우리도 진리를 증거하고, 판단하기에 앞서 구원하고, 봉사를 받기 보다 봉사하며,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모든 기구는 보다 효과적으로 이웃 사랑과 인간구원에 봉사하기 위해 재검토되어야 하겠으며 우리 모두는 더 이상 말로만 사랑을 외치지 않고 우리가 가진바를 기꺼이 이웃과 나누는 행동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입니다.

“누구든지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의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도 마음의 문을 닫고 그를 동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에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우리는 말로나 혀끝으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실하게 사랑합시다”(1요한 3, 17-18).

4. 우리 교구는 지역적으로 대부분이 농촌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구 신자의 50%가 농촌에 살고 있고, 194개의 농촌공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민과 농촌교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산업이 공업위주의 산업구조로 전환되면서 농촌생활이 어려워지고 특히 젊은이들의 이농현상이 뚜렷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왔습니다. 그리하여 농촌은, 경제적 빈곤과 지도자 부족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촌교회에 특별한 애정으로 많은 관심과 사목적 배려를 해줄 것을 호소하며 도시 본당과 신자들은 지속적으로 농촌교회와의 긴밀한 일치 속에 농촌교회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도리켜 생각하면 우리 교회의 출발은 농촌공소에서부터 시작되어 성장했습니다. 농촌교회가 우리 신앙의 뿌리라고 볼 때 농촌교회의 활성화는 우리의 기본 과제이며 부단히 노력해야 할 현상교회입니다.

5. 하느님은 이 지상에 당신의 구원사업을 계속하시고 완성시키기 위해 교회를 세우시고 모든 인류를 향하여 파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본질적으로 선교하는 자이며 우리 모두는 이 세상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할 선교사입니다. 주께서도 “너희는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여라”(마르 16, 15)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조금도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물론 우리 교구도 외국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이제 20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도 세계 교회를 위하여 기여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세계 도처에는 성직자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비하면 우리는 하느님의 특별한 축복으로 성직자가 풍족한 셈입니다. (3년 하단에)

공무원·검정고시·대입·고입, TOEFL·영수단과·일본어
교우 우대 20%

京 文 学 원

이리 역전 (☎ 5943)
대표: 한 정상(모이세)

각종 수입약품 완비
(간장, 빈혈, 영양제 등)
친절 상담 봉사
염가 판매 조제

군산 태 광 약 국

구시장 오거리 ☎1800
이 루도비코(원식)
최 데테사(순정)

[SS] FASHION 전주 특 약 점

 **버 킹 검**  **위 크 엔 드**
로가디스 소사이어티 간 이 북

 **런 던 포 그** **40% 바겐세일**
세계적인코트의명문 83. 1. 6~1. 22까지
전주시 중앙동 3가
챌 린 저 삼화약국 옆 ☎4451
주 니 어 북 주인 유 율리안나

결 의 문

“국가 통치자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주요한 책임 가운데 일차적이고도 가장 큰 의무는 국민 모두와 각 계층에 대해 엄격하게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다”(노동헌장 제49항).

그러나 현정권의 노동정책은 사용자 의무보다는 노동자의 의무를 지나치게 강요하면서 인간을 단순히 영리의 수단으로 취급할 뿐 아니라 노동자의 종교적 관심과 신앙생활까지도 말살하려 하고 있다.

이는 태창섭유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사건 이후 계속되는 가톨릭 노동자 탄압 사례들에서 명백히 드러났다. 따라서 우리는 현정권이 내세우는 민주정의 복지사회에 대해 불신할 수 밖에 없음을 슬퍼한다.

이에 우리는 사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정의로운 노동사회 구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우리의 주장을 밝힌다.

1. 부당 해고된 근로자는 즉각 복직되어야 하며, 부서이동, 종노동, 고립근로 등 갖가지 모양의 근로자 탄압은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
2. 가톨릭 노동청년에 대한 탄압은 즉각 중지되고, 근로자들의 종교활동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3. 근로자들에게 가한 물리적인 폭력에 대한 사과는 물론, 그에 따르는 적절한 보상을 요구한다.

이상의 우리들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우리는 함께 행동할 것을 결의한다.

1983. 12. 28.

천주교 전주교구 사제단 일동

□ 교구청 동향

사무실 이동 : 법인사무실(홍보국 자리), 홍보국(법인사무실 자리), 총경리실(법인사무실 안으로), 농민회 및 노동사무(총경리실 자리)

직원 채용 : 관리국 : 한 재호(베다)-센타, 김 중학(토마스)-법인사무실
홍보국 : 정 상권(발다살)-간행물 담당

□ 군중후원회 정기총회 연기

군중후원회 정기총회를 다음과 같이 연기하오니 착오없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총회일시 : 84년 1월 21일(토) 오후 3시

장 소 : 가톨릭 센타 강당

회 순 : 미사(주교님 주례)·총회·파티

※입원소집-1월 20일 오후 7시, 장소-센타 다방

(2면에서 계속) 교황성하에서도 성직자가 극심히 부족한 교구들을 지원해 줄 것을 호소하고 계시며 우리는 결코 이를 외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친애하는 교형 자매 여러분,

저는 이상과 같이 1984년도 사목지침을 발표하면서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교구 내 모든 본당과 기관 단체들은 아래 세부지침에 따라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고 실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풍성한 축복을 기원합니다.

1983년 12월

교 구 장 박 정 일 주 교

註 : 세부지침은 다음주 주보에 기재됩니다.

요심이 (544) 김병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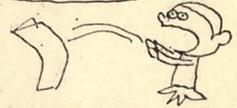
아주 높은 나라들의
신년사를 읽어보자



모든분이서민생활과는거리가먼
추상적인 정치에관한말만
했구나!



아~
실망하였노라!



국민을위해서사랑으로
봉사하겠다는말은
한마디도없으니...



교 사 초 빙

1. 과목 : 한문과, 역사과, 과학과(물리·지학 겸), 불어과, 가정과, 무용과 체육과, 각 1명

2. 구비서류 : ①자필이력서 ②성적증명서(고교·대학)

3. 서류제출 마감 : 1984년 1월 14일

4. 제출처 : 전주 성심여자중·고등학교 서무과

성심 여자 중·고등학교

학교 법인 해성학원 이사장

최 윤경(유리안나)
미용실 미용학원
특수 헤어스타일, 신부화장
학생 수시 모집
해외 연수생 모집
이리시 중앙동 3가 7-1
☎ ③ 2496 ③ 8653

금·은·보석·고급시계
(반지계·결혼예물 상당)
명 금 당
대표 임 선희(요한)
군산 ☎ ② 8 1 1 3

미영칼라현상소
칼라사진 45분 완성
컴퓨터 시스템의
현상 인화기 신설
☎ ② 3651·9286
전주시 중앙동 3가 30-1
전병전(토마스모어)
이영의(투리포니아)

금·은·보석·시계
금 파
전주시 교사동
구 역전오거리 입구
☎ (72)-3 0 6 6
유 승주·황 로사리아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 오늘은 근로자들을 위하여 전 분당에서 특별기도회를 실시합니다

1. 84년 꾸르실로 교육 : 여성 16차-10~13일, 남성 19차-17~20일
2. 베소라 성서 3기 개강식 : 10일 오후 7시30분, 장소-가톨릭 센터
3. 참사회 : 17일
4. 농민회 부녀자 연수 : 23~25일, 장소-가톨릭 센터
5. 방송 안내(5분 명상) : 이리 기독교 방송(1314KHz), 시간-매일 저녁 11시15분

(중양)

전화 ⑥1711~3

주임 신부 문정현
보좌 신부 안김
사도 회장 김인

1. 첫영성체 및 초등부 영세 : 28일 영세, 29일 첫영성체 대상-국교 3~6학년(83년 영세자 자녀 필히 참석요), 교리시간-7일부터 오전 9시(화~토)
 2. 부활반 교리 : 8일부터 주일 9시
 3. 병자방문 : 10일, 사무실에 신청
 4. 애령회 총회 : 15일 공식미사 후
 5. 사도회 상임위원회 : 공식미사 후
 6. 청년성가대 84년 임원개편 : 수고하시겠습니까 회장-고한길, 부회장-오수택·정승욱, 총무-임준호·유승욱, 전회-서학선·한공순, 재무-김윤섭
 7. 84년 전례위원 개편 : 수고하시겠습니까 임주택·전한수·성달용·한귀석·김완준·배창수·이영희·권오숙·박명숙·김미자
 8. 꾸리아 : 오후 2시 회합실
 9. 자모회 : 10일 오후 3시(성서 지참)
- 지난주 봉헌금 : 959, 423원 금양동 : 43, 910원
교무금 : 1, 813, 000원 감사헌금 : 박광명(5만원), 양만봉(3만원), 이광기(5천원), 박도마·김모니카(각 1만원)

(노송동)

신부 ⑨0969
수.사 ②7032

주임 신부 김윤태
보좌 신부 나춘서
사도 회장 이홍

1. 사도회 확대회의 : 오늘 공식미사 후 대상-사도회임원·각단체장·각구역장·공소회장
2. 꾸리아 회합 : 오늘 오후 2시 각님의 간부님들 빠질없이 참석하세요
3. 중·고등학생 동계피정 : 12일~14일까지(2박3일) 부모님들의 많은 성원을 바랍니다
4. 83년도 교무금 속히 완납 바랍니다 : 다음주에 미납자 명단을 공개하오니 확인하여 주십시오
5. 구역장 회의 : 10일 오후 3시
6. 봉사자 모임 : 11일 오후 8시
7. 꾸리실로 교육참가 : 10일~13일까지 참가자-최마리아·이엘리사벳·김베로니카·조아베스·배마리아, 많은 기도와 팔랑카 부탁드립니다

(덕진)

전화 신부(3)2182 주임 신부 김봉희
수녀(72)1222 보좌 신부 정양현
사무(72)6259 사도 회장 양상열

1. 오늘 모임 : L.M 꾸리아 월례회의-오후 2시 요셉회 회의-12시, 진복회 정기총회-중식후 1시 교리교사 정기총회-3시 미사후 학생회 정기총회 : 9시 미사후 교육관
 2. 까리따스 자모회 월례회의 : 10일 오후 12시30분
 3. 부활 영세 교리 개강(보충교리) : 11일 저녁 7시30분 ①성탄영세에 빠진분, 일부 교리를 배운분 대상 ②수녀님 교리반(화·금)은 그대로 계속함(단 11일 저녁엔 함께 참석 바람) ③새 예비자, 희망자 모두 참석 바람
 4. 사도회 총회 : 15일 공식미사 후(교육관) 전위원·각구역장·공소회장·단체대표 참석 바람
 5. 다음주 모임 : 성모회-14일, 반석회-15일, 청년연합회
 6. 금주 분당 청소 : 청년연합회
 7. 84년도 교무금은 자진 십입 바람 : 1월중 한 가정도 빠지지 맡시다
- 지난주 봉헌금 : 560, 075원 교무금 : 46, 000원

(복자)

전화 ②5238번

주임 신부 권영균
사도 회장 김성원

1. 성우회 : 오늘 공식미사 후
 2. 꾸리아회 : 오늘 오후 2시
 3. 봉헌금 미수 완납 바랍니다
 4. 84년 봉헌금 봉투를 함께 넣어주시고 주일헌금에 전성을...
 5. 수녀원 헌금 : 신입금 속히 납부해 주세요 헌금을 아직도 안하신 분들 헌금 바람
 6. 금주전례 : 해설-최정순, 독서-①김성원 ③정동민 차주전례 : 해설-유덕열, 독서-①천 건 ③김인석
- 지난주 봉헌금 : 143, 836원 교무금 : 670, 760

(서학동)

신부 ⑨8307번
수녀 ②2276번

주임 신부 김병환
사도 회장 김낙균

1. 반장님 월례회 : 오늘 공식미사 후
 2. 꾸리아 모임 : 오늘 오후 2시 회의실
 3. 자모회 모임 : 10일 오전 10시30분
 4. 할머니 모임 : 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5. 84년도 교무금 신입 : 아직 신입을 안하신 분은 속히 신입 바랍니다
 6. 수녀원 전화설치 : 황모니카(5천원) 감사합니다
 7. 다음주 전례 : 독서-①박경환 ③한찬철
- 지난주 봉헌금 : 382, 210원 교무금 : 448, 000원

(숲정이)

전화 ⑨7366
수·유 ⑨9567

주임 신부 김종길
사도 회장 김수겸

1. 사도회 월례회 : 10일 오후 7시30분
 2. 꾸리아 월례회 : 오늘 공식미사 후
 3. 꾸리아 연총선목회 : 꾸리아 월례회 후
 4. 금주전례 : 해설-이귀례, 독서-①강원모 ③홍성조 기도-이은자·이규철
 5. 차주전례 : 해설-이귀례, 독서-①김남근 ③선종현
- 지난주 봉헌금 : 224, 945원 교무금 : 396, 350원

(전동)

전화 신부 ⑥6208 주임 신부 김병열
사무 ③3222 보좌 신부 박찬길
수녀 ⑧8347 사도 회장 김병오

1. 자모회·장우회 : 공식미사 후
 2. 성마리아 꾸리아 : 오후 2시
 3. 사도회 : 다음주 공식미사 후
 4. 성학회 : 14일 저녁미사 후
 5. 꼬미시움 : 다음주 오후 2시
- 지난주 봉헌금 : 880, 750원 교무금 : 646, 500원

(파티마)

신부 ②0915 주임 신부 김영일
수녀 ②4804 사도 회장 황희상

1. 교무금 84년분 자진 십입을 바랍니다 금년 말까지 자진십입을 아니하시는 분은 사도회에 일임하는 걸로 인정합니다
 2. 교리교사 새 임원진, 중·고 새 임원 학생들 : 1년동안 수고들 해주십시오
 3. 결원된 부처장급 선출 : 금월 말경에 하겠습니다
 4. 83년도 교무금 미납하신 분이 계시는데 하느님과 대화를 한번 해보십시오
 5. 84년부터 200주년의 해입니다 : 200주년 정신을 되살려 모든 면에 성실하게 생활합니다
 6. 예비자 교리 : 적극 참여합시다
- 지난주 봉헌금 : 304, 680원 교무금 : 418, 610원